우암학원 창학 72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SINCE 1952

Since 1995
PARAVIEW
다르게 짓고 바르게 짓는
삼일건설 · 삼일파라뷰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1893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11월 7일 2022년 11월 30일 수요일

정부·노동계 '강 대 강' 대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이 배석한 가운데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물연대 광주본부가 29일 오후 광주 서구 기아차 광주공장 남문 앞에서 개최한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화물연대 총파업에 '업무개시명령' … 광주·전남 시멘트 업체 9곳 조사

노동계 "그릇된 노동관이 상황 악화 … 반 헌법적 결정 철회하라" 요구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면서 정부와 노동계, 여·야가 대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업무개시명령은 불법종식명령이다"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압박했고, 노동계와 야당은 "과잉대응, 반헌법적 결정이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자 곧바로 시멘트업계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시멘트업 운수 종사자 2500여명이며, 관련 운수사는 209곳이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 시멘트 업체 9곳에도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졌다. 화물연대 측은 복귀명령을 거부하고 대응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날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국토부와 지자체 공무원·경찰 등으로 구성된 현장합동조사단은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광주 3개 시멘트 업체와 전남 6개 시멘트 업체를 방문했다. 이들은 운송업체와 거래하는 화물차주의 명단·주소를 파악하고 운송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현장 조사 과정에서 운송 거부에 참여하는 화물차가 확인되면 번호판 검사와 추가 조사를 거쳐 해당 화물차주에게 명령서를 송달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제는 한 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게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 노사의 마음이 다를 수 없다"며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화물연대는 경제소생을 바라는 민생과 국민경제를 볼모 삼아 산업기반의 핏줄인 물류를 중단시켰다"며 "불법파업으로 나라 경제가 파탄 나고 국민의 고통·불안을 방치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엄정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당내에서 잇따랐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복합위기 상황에서 파업이 장기화하면 우리 경제는 회복이 불가능한 심각한 타격을 받고 민생은 파탄날 것"이라며 "민노총이 불법·탈법을 저질러도 처벌을 안 받는 시대는 지났다. 정부가 적절하게 타협하고 넘어가는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파국'을 경고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업무개시명령 발동 직후 성명에서 "대통령의 그릇된 노동관은 상황을 악화시키고 파국을 가져온다"라면서 명령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업무개시명령이 "상황을 더 극한으로 몰아갈 것이 뻔한 결정"이라면서 "결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현 정부에 있음을 직시하고 이제라도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화와 교섭에 나서라"라고 주문했다. 민주노총은 업무개시명령이 화물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봐온 그간 정부의 입장에도 배치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약속을 파기한 것도 모자라 과잉대응으로 사태를 치킨게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화물연대를 협상 가치조차 없는 집단으로 매도하고,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를 이간질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첫 교섭이 제대로 진행될 리 만무했다"며 "무능·무책임·무대책으로 일관한 정부의 태도가 사태 키웠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파업의 원인 제공자는 화물연대가 아닌 정부인데도 윤석열 정부는 대화 대신 협박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정미 대표는 "지난 6월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2개 품목에만 적용되는 안전운임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 답을 내놔야지 난데없는 엄벌 타령에 업무개시명령이 가당키나 한 일이냐"고 반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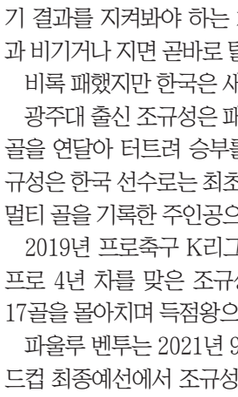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8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2]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이상민 해임" "국조 보이콧" 여야 대치 ▶3면
조류독감 확산 비상… 수의직 공무원 부족 ▶6면
도시가 역사를 기억하는 법 - 에필로그 ▶22면

광주대 출신 조규성 월드컵 스타★ 탄생

가나전 2-3 패배 속 홀로 2골



조규성

한국 축구대표팀의 월드컵 16강 진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관련 기사 7,18면〉

한국이 28일 카타르 알라이얀의 에듀케이션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카타르월드컵 H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가나에 2-3으로 석패했다.

전반 24분 모하메드 살리수(사우샘프턴)와 34분 모하메드 쿠두스(아약스)에게 잇달아 실점해 0-2로 끌려간 한국은 후반 13분과 16분 조규성(24·전북)이 잇따라 헤더골을 터트려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하지만 후반 23분 쿠두스에게 결승골을 내주며 무릎을 꿇었다. 한국은 이로써 1무 1패(승점 1)가 됐다.

한국이 16강에 진출하려면 오는 12월 3일 오전 0시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포르투갈과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무조건 승리한 뒤, 같은 조 다른 팀 경기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처지가 됐다. 포르투갈과 비기거나 지면 곧바로 탈락이 확정된다.

비록 패했지만 한국은 새로운 희망을 봤다.

광주대 출신 조규성은 패색이 짙던 후반전에 두 골을 연달아 터트려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조규성은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월드컵 한 경기에서 멀티 골을 기록한 주인공으로 이름을 올렸다.

2019년 프로축구 K리그2 FC안양에서 데뷔해 프로 4년 차를 맞은 조규성은 올해 K리그1에서 17골을 몰아치며 득점왕으로 우뚝 섰다.

파울루 벤투는 2021년 9월 레바논과 카타르 월드컵 최종예선에서 조규성을 처음 출전시킨 것을 시작으로 꾸준히 그를 대표팀에 발탁해 왔다.

조규성은 당당히 카타르 월드컵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주전보다는 '백업 자원'에 가까웠다. 부동의 원톱 스트라이커 황의조(올림피아코스)가 버티고 있었고, 조규성은 그다음 옵션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조규성은 이번 월드컵에서 새로운 스트라이커로 떠올라 존재감을 드러냈다.

조규성은 "나도 솔직히 별거 없는 선수인데 월드컵이라는 세계적 무대에서 골도 넣었다"며 "끝까지 자신을 믿고 열심히 꿈을 위해 쫓아가면 이런 무대에서도 골을 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 선수들도 꿈을 갖고 열심히 하면 된다. 지금은 이런 세계적 무대에서 골을 넣을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그런 마음뿐"이라고 덧붙였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